

『사문유취』 초집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ojib of *Samunyuchi*

韓美鏡 (Han, Mi-kyu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3.3 보급용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4 요약용 |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사문유취와 초집 |
| 2. 연구의 배경 | 4.1 사문유취와 신편고금사문유취 |
| 2.1 선행연구 | 4.2 사문유취 초집 |
| 2.2 용어 | 4.3 사문유취 초집 현전본 |
| 3. 초집의 유형 | 5. 결 언 |
| 3.1 과거용 | <참고문헌> |
| 3.2 학습용 | |

< 초 록 >

이 연구는 발췌본 또는 초록본 등으로 알려져 온 초집의 유형을 고찰하고, 유서 중 『사문유취(事文類聚)』 초집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 및 규장각 소장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중 3종의 목판본을 서지적으로 고찰하였다. 초집의 유형은 과거용, 학습용, 보급용 및 요약용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문유취』 초집에 대한 3곳 도서관의 소장본은 8종으로 조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중 『사문초』와 『사문유초』, 『상교사문유초』에 대한 서지적 조사 결과, 『사문초』는 모두 동일 판본의 목판본이며, 3종의 초집은 모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나 다른 판본으로 구성과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사문유취』의 초집에 대한 조사 결과 『사문초』(또는 『상교사문유초』)와 『사문유초』(또는 『사문유취초』)는 각각 같은 초집이며, 이들은 축목의 『사문유취』를 초집한 것이며, 『고금사실유취』는 부대용의 『신편고금사문유취』를 초집한 것임을 밝혔다.

要語: 사문유취, 초집, 사문초, 사문유초, 유서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조교수(bib4u@kgu.ac.kr)

접수일: 2016년 9월 9일 최초심사일: 2016년 9월 13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types of excerpt (Chojib), which has been know to be epitomical version or draft version. And when it comes to *Samunyuchi* Chojib out of Yuseo, this study investigated versions possessed by National Library of Korea, Jangseogak, and Kyujanggak. Lastly, it reviewed three types of woodblock version out of the versions possessed by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a bibliographical way.

It was found out that the types of excerpts are divided into excerts for state examinations, studies, disseminations, and summarization. And it was also found out that there are 8 types of versions possessed by 3 libraries. As a result of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Samuncho*, *Samunyucho*, and *Sangkyosamunyucho* which are possessed by National Library of Korea, *Samuncho* proved to be all woodblock version of identical version and that Chojib of three types are all published with woodblock version, showing difference from other versions in terms fo structure and format.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Chojib of *Samunyuchi*, it was found out that each of *Samuncho* (or *SanggyoSamunyucho*) and *Samunyucho* (or *Samunyuchicho*) is the same Chojib and that these are the Chojib of *Samunyuchi* of Chukmok. It was also found out *GogumSasilyuchu* is Chojib of *SinpyonGogumSamunyuchi* of Budaeyong.

Key words: excerpt, *Samunyuchi*, Chojib, *Samuncho*, *Samunyucho*, Yuseo

1. 서 언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자 또는 그림을 수단으로 표현된 정신적 소산물을 체계 있게 담은 물리적 형태로 정의되는 책은 손으로 쓴 것과 인쇄한 것으로 필사본과 간인본으로 크게 구분되기도 하며, 간인본도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구분된다. 또한 필사본으로 불리우는 사본은 고본(稿本), 전사본(傳寫本), 사경(寫經)으로 세분되며, 간인본은 간인자와 간인처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책의 종류에 포함되어 구분의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발췌본, 초록본 또는 요약본 등으로 불리우는 초집(本)이 있다.

초집(抄集)은 일반적으로 과거 준비를 위한 수험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집은 일부 학습을 위한 간략본이기도 하며, 초록 및 초책의 보급용이며, 때로는 경제적 필요에 의한 요약본으로 만들어져 필사 또는 간인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초집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조선시대 전기의 과거제도의 한 측면이나 과거제도의 상의 문제 및 요행 등의 역사적 사건의 일부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한시 연구의 한 부분 또는 한시 학습서로 연구되어 왔다. 즉, 초집에 대한 전반적 연구 또는 초집 현전본 등에 대한 서지적 조사와 분석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초집의 유형을 조사하고 초집의 간행과 현전본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집의 개념과 초집의 유형을 조사 및 고찰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및 장서각 소장인 『사문유취(事文類聚)』 초집을 조사하고 나아가 『사문초(事文抄)』, 『사문유취초(事文類聚抄)』 등의 현전본을 서지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초집의 용어와 종류는 문헌연구와 역사연구방법으로 진행하고 초집의 현전본의 조사와 분석은 서지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집의 용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사용어 또는 책의 종류로서 초집(抄集)과 초집(抄輯) 및 선집(選集), 초록(抄錄), 그리고 수초본(手抄本)과 발취본을 살폈다. 다만 초집(草集)과 초집(初集) 등은 동음어이나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초집의 유형은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크게 과거용, 학습용, 보급용, 요약용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 배경과 사례에 해당하는 초집을 살폈다.

셋째, 초집 현전본의 조사는 유서 『사문유취(事文類聚)』 초집으로 『사문초(事文抄)』, 『사초(事抄)』, 『사문촬요(事文撮要)』, 『사문유초(事文類抄)』, 『사문유취초(事文類聚抄)』, 『고금사실유취(古今事實類聚)』, 『혹관(或觀)』, 『잡동산이(雜同散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및 장서각 소장본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중 목관본인 『사문초』, 『사문유취초』, 『고금사실유취』를 대상으로 서지학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전자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2.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 초집 관련 선행연구와 초집 관련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선행연구

초집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교육에 대한 연구와 과거에 대한 연구 외에 한시 학습과 관련한 연구로 구분된다. 우선 김락영은 조선전기의 역학과 의학교육

과 관련하여 잡학교육을 연구하며 일부 초집을 다루었다.¹⁾ 과거에 대한 연구로서 김병호는 조선전기의 과거제도와 과업형태 상의 교육의식을 연구하며 과거에서의 초집 사용과 관련한 문제를 고찰하였다.²⁾ 박현순은 조선시대의 과거 관련 수험서를 연구하면서 초집의 문제를 기술하였다.³⁾ 특히, 이원재는 조선시대 전기의 교육과 과거에 대하여 제도사적으로 연구하면서 교육의 요행 문제, 과거시험의 교육적 역기능 문제 및 교육제도사의 과제 등과 함께 과거와 초집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⁴⁾ 한편, 심경호는 근대 이전까지의 한시의 학습 방식으로 연구(聯句)와 고풍(古風) 제작과 관련하여 한시 초집인 『백련초해(百聯抄解)』, 『당현시초(唐賢詩抄)』, 『송현시초(宋賢詩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⁵⁾

이상과 같이 초집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의 교육과 과거 또는 한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용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왔다.

2.2 용어

초집의 용어와 관련하여 유사용어로서 초집(抄集)과 초집(抄輯) 및 선집(選集)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집(抄集 excerpt)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요긴한 내용을 뽑아서 모음’이며, 초집(抄輯)은 초집(抄集)과 같은 의미이다. 일례로 초집(抄輯)의 경우 『예원신편(藝苑新編)』과 같은 경우 고전에 있는 문구를 초집(抄輯)하여 분류, 편성

1) 김락영, “조선전기 잡학교육과 소고: 역학·의학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4).

2) 김병호, “朝鮮前期 “科擧制度”와 科業形態에 나타난 教育意識,”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0).

3) 박현순,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韓國文化』 69(2015), 205-243.

4) 이원재, “조선전기 교육제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사학』 28권 2호(2006), 75-114. ; 이원재, “朝鮮前期 抄集 研究,” 『한국교육사학』 22(1)(2000), 151-168. ; 이원재, “조선전기 교육에서의 ‘요행’의 문제,” 『教育學研究』 46(1)(2008), 53-78. ; 이원재, “조선전기 과거시험의 교육적 역기능,” 『한국교육사학』 3(1)(2013), 161-186.

5) 沈慶昊, “근대 이전의 한시 학습 방식에 관하여: 聯句·古風 제작과 抄集·選集의 이용,” 『語文研究』 30(3)(2002), 235-257.

한 책으로 정의하면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러한 종류의 책은 다소 유서와 성격이 유사한 경우이며, 실제 유서를 초집(抄輯)한 책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둘째, 보통 선집(選集 collection)은 사전적으로 한 사람이나 한 시대 또는 한 나라의 작품 가운데서 몇 가지의 작품을 추려서 편집(編輯)한 책을 의미한다. 일례로 문선(文選)은 양 소통(蕭統, 昭明太子)이 진·한나라 이후 제·양나라의 대표적인 시문을 모아 엮은 책으로 초집과는 다르다.

셋째, 초록(抄錄 abstract)은 서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적거나 또는 그런 기록을 의미한다. 간혹 고전자료의 일부 내역을 뽑아 적은 경우 초록본이라 명명하기도 하나 대개 초록은 현대적으로 전체 책이나 논문 등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경우에 사용된다.

한편, 초집은 대부분 내용을 발췌하고 손으로 베껴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책의 종류 중 수초본(手抄本) 및 발췌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초본(手抄本) 또는 중국의 수사본(手寫本)은 손으로 베껴 쓴 책을 의미한다. 이는 필사본 중 친필 수초본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 발췌본은 책, 글 따위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 낸 책을 말한다. 다만 발췌본은 현대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간혹 현대 연구자들에 의하여 발췌본으로 불리우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요긴한 내용을 뽑아서 모은 초집(抄集)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3. 초집의 유형

초집은 대체적으로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초록과 같은 발췌본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여러 조사를 바탕으로 초집의 유형을 크게 과거용, 학습용, 보급용 및 요약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과거용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264 성종 23년 4월의 기록을 보면 유생들이 강경(講經)할 때 혹 초책(抄冊)을 끼고 와서 틈을 타 몰래 보는 자가 있으니 수색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다.⁶⁾ 다른 일례로 『단종실록(端宗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이양이 문과 회시에 당하여 초집(抄集)을 민정에게 부탁한 일이 발각되어 죄를 벌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중 ‘초책(抄冊)’, ‘초집(抄集)’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며, 이 때의 초책이나 초집은 흔히 과거시험에 나올만한 글들을 모아 발췌하거나 요약한 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과거시험 예상 문제집으로 시나 글을 짓는 작문의 제술(製述) 대비용과 경서 가운데 몇 가지를 강송하는 강경(講經) 대비용으로 구분된다(<표 1> 참조).⁷⁾ 특히 초집이 본격적으로 성행한 때는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1 태종 11년에 식년시 문과 초장의 시험과목을 강경대신 제술로 대치한 다음부터로 알려져 있다.

<표 1> 문과의 종류와 시험과목

		종류	과목	시험단계	비고
文科	小科	생원시	講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初試: 講經 • 覆試: 四書疑 1편과 五經義 1편 이후 四書疑와 四經義(春秋義 제외) 중 1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初試와 覆試의 2단계 1) 初試: 지방과 서울의 거주지 별로 시험, 일명 鄉試 2) 覆試: 초시 합격자가 서울에서 예조 주관으로 시험, 일명 會試 • 詩: 排律十韻詩(또는 十韻詩, 百字科. 실제 五言排律) 또는 古詩(즉, 科詩)
		진사시	製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폐지 반복, 1453-1894년 존속 • 1438년 식년시에 생원시와 함께 설치 • 賦 1편과 古詩·銘·箴 중 1편 • 1746년 이후 30구 이상의 賦 1편과 30구 이상의 詩 1편 	
	大科	문과	講經과 製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初試 1) 초장: 四書疑·五經義·論 중 2편 講經 2) 중장: 詩·賦·訟·銘·箴 중 2편 製述 3) 종장: 策 1편 • 覆試 1) 초장: 四書三經의 講經 2) 중장: 詩·賦·訟·銘·箴 중 2편의 製述 3) 종장: 策 1편 	

6) “儒生講經時 或有挾持抄冊 乘間潛見者 請依中終場例 遣監察搜之.”

7) 일부 이원재, “朝鮮前期 抄集 研究,” 『한국교육사학』 22(1)(2000), 151-2를 참고하고 <표 1>의 경우 추가 조사하여 재정리하였다.

이상의 표와 같이 원래 과거시험에서 치루어지는 시험과목은 10과목 이상이나 되었다. 먼저 생원시 초시에서 사서의 1편, 오경의 1편을 본 후, 이듬해 복시에서 임문고강(臨文考講)의 방식으로 읽게하는 강서(講書) 시험으로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부과하였다. 진사시 경우는 초시와 복시에 모두 부 1편, 시·명·잡 중 1편을 보았다. 대과인 문과는 초시의 초장에서 사서의와 오경의 및 논 중에서 2편에 대한 경서를 강독하는 강경으로 시험을 실시하였고, 중장에서는 시와 부, 송, 명, 잡 중에서 2편을 시나 글로 지어야하는 제술로 시험을 보았다. 마지막 중장에서는 책 1편을 보는 것이 보통이었다. 복시에서도 초장과 중장의 경우 사서삼경을 강경하고, 중장의 경우 사서삼경에 대한 강경 외에도 책 1편을 시험으로 보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초장과 중장 및 종장 구별없이 대책과 표, 전, 잡, 송, 제, 존, 논, 부 및 명의 10과목 중 1편으로 등급을 정하였다. 따라서 식년 전해인 가을부터 실시하여 식년 봄에 발표가 있을 때까지 반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⁸⁾ 이처럼 시험 과목이 매우 많고 공부할 내용고 과중하고 내용도 어려워 어릴 때부터 소학, 사서삼경, 시와 부 및 책 등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20여 년을 공부해야하는 등 오랜 동안 과거준비를 해야 했다.

즉, 강경은 경문을 강송하는 구두시험이었으며, 제술은 필기시험으로 시구나 문장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 외에도 문장력과 창의력을 모두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이었기에 준비가 만만치 않았기에 초집과 같은 중요 시구와 문장을 초록한 시험대비 책자가 활용된 것이다. 다만 초집은 이상과 같은 시와 글을 짓는 제술시험 대비용이었으나 나중에는 경서를 강독하는 강경시험 준비용으로도 활용되었다. 다만 과거 준비용의 초집의 경우 필사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정식 책으로 필사 또는 간행되어 후대로 전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노용필, 『개화기 서울 사람들 1: 왕실·중인·천민, 우리 역사속의 사람들 (1)』 (서울: 어진이, 2004), 136-138.

3.2 학습용

학습용의 초집은 특히 한시 제작의 학습용 초집을 들 수 있다. 즉 입신양명을 위한 소과 중 진사시(進士試)에서 치루게 되는 시나 과시의 준비를 위하여 글을 익히면서부터 한시의 제작 방법을 익혀야 했다. 그 방법은 대개 명가들의 시 가운데 2구(句) 1연(聯)으로 이루어진 연구(聯句)를 익히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때 윗사람들이 명구를 가려 뽑아 둔 초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도 공책에 연구를 만들어 보고도 하였다.⁹⁾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한시 학습서인 『백련초해(百聯抄解)』¹⁰⁾는 대표적인 학습을 위한 한시 초집이다. 이는 시구의 출처는 자세하지 않으나 칠언고시(七言古詩) 중에서 연구(聯句) 100개를 뽑아서 한글로 해석을 붙인 책으로 연구의 한 자마다 『천자문(千字文)』과 같이 한글로 새김과 독음을 단 뒤에 그 구의 번역을 붙이고 있다. 고려의 이인로(李仁老)와 노유(老儒)의 일화로 언급되는 “옛 시인의 경구(警句)”인 “花笑檻前聲未聽，鳥啼林下淚難看”이 바로 『백련초해』 첫머리에 실려 있어, 이인로가 이를 참고하여 한시를 학습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조선의 김시습은 태어난 지 여덟 달 만에 글을 알았다고 한다. 그의 외할아버지가 김시습의 천재성을 파악하고 그에게 『천자문』을 우리말보다 먼저 가르

9) 沈慶昊, “근대 이전의 한시 학습 방식에 관하여: 聯句·古風 제작과 抄集·選集의 이용,” 『語文研究』 30(3)(2002), 235-7.

10) 편찬자와 원간의 연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1576년(선조 9)의 『고사촬요(攷事撮要)』의 책판 목록에 평양과 장흥(전라도)에 『백련초해』의 책판이 등록되어 있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1988)에 의하면 연구의 한 자마다 『천자문』과 같이 한글로 새김과 독음을 단 뒤에 그 구의 번역을 붙였는데, 김인후(金麟厚)의 편찬이라고 전하여지는데 정확하지 않다. 임진왜란 이전의 간본은 일본의 동경대학에 소장되어 있으나 간기는 없는 목판본이다. 임진왜란 이후의 중간본을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과 순천의 송광사에 책판까지 남아 있다. 동경대학 소장본과는 달리 한자의 새김이 없고 한시 연구의 순서가 다르며, 중간본 간에도 연구의 순서와 번역이 일치되지 않는다. 동경대학 소장본은 1973년에 효성여자대학교의 『국문학 연구』 4호에 영인되고, 임진왜란 이후 간본은 1960년에 대구대학(현 영남대학교의 전신)에서 영인되었다.

쳤으며, 한시의 학습을 위하여 『당현송현시초(唐賢宋賢詩抄)』에서 100여 수를 가려 뽑아 공부하도록 했다.¹¹⁾ 『당현송현시초』는 원나라 초기에 후촌(後村) 류극장(劉克莊)이 엮은 것으로 당나라와 송나라시대 유명한 시인들의 한시를 선별하여 모은 책인 『분문찬류당송시현천가시선(分門纂類唐宋時賢千家詩選)』이다. 이는 중국에서는 『천가시(千家詩)』로 불리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연산군 시절에 『당현시』와 『송현시』¹²⁾ 등이 간행되었으며, 이상의 일화에서 보듯이 『당현송현시초』 또는 『당현시초(唐賢詩抄)』나 『송현시초(宋賢詩抄)』로 초집으로 편찬되어 학습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표 2>와 같이 중국 남송의 문인이자 시인이었던 류극장(1187-1269)은 가장 처음으로 『천가시(千家詩)』를 선별 편찬한 사람이며, 『천가시』의 원래 서명은 『분문찬류당송시현천가시선』으로 남송의 류극장이 편집한 아동학습서로서 현재 전하는 『천가시』에는 223수가 실려 있다.¹³⁾ 류극장이 편집한 『천가시』는 원래 1,200여 수로서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편집되었다. 그러나 이는 총 22권으로 내용이 다소 번잡하여 남송의 사방득(謝枋得)이 칠언절구와 오언율시를 뽑아 『중정천가시(重定千家詩)』로 약 123수로 초집하였으며, 명대 사용된 『천가시』로는 류극장 편선(編選)도 있고, 사방득 편선도 있다. 이후 청대에 왕상(王相)이 다시 『오언천가시(五言千家詩)』로 정리 초집하여 오언절구와 오언율시 각 40여 수로 총 80여 수로 편집되었으며, 맹호연(孟浩然)의 “봄 잠에 날이 새는 줄 모른다(春眠不覺曉)”부터 시작되고 있다. 『천가시』에 실린 것은 대부분 당송시인의 유명한 시들이며, 명대에 『천가시』는 황실의 황족 아동의 학습교재로 사용하였다.

11)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매월당집』 (서울: 휴머니스트, 200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2101&cid=41708&categoryId=41736>>

12) 심경호, “시학의 발전과 두시집 간행,”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서울: 일지사, 1999), 372. 四庫全書.

13) 류극장의 『분류편찬유당송시현천가시선(分門纂類唐宋時賢千家詩選)』은 『사고전서(四庫全書)』에 포함되지 않은 미수도서이나 『완위별장(宛委別藏)』에 편입되었다. 또한 일본에서 內田泉之助, 林秀一, 吉田賢抗編의 『唐宋詩抄: 古典II(指導資料)』 (明治書院, 1975)이 간행되었다. 이는 소화(昭和 1972) 49년 4월 10일 문부성(文部省) 검정제(檢定濟) 교과서로서 고등학교 국어과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표 2> 천가시의 변화

남송 류극장 천가시 (분문찬류 당송시현천가시선) 1,200여 수	⇒	남송 사방득 중정천가시 칠언절구, 오언절구 123수	⇒	청 왕상 오언천가시 오언절구, 오언율시 80수	⇒ ⇒ ⇒	조선 당현송현시초 <hr/> 현대 천가시 123수
--	---	---	---	--	-------------	---

3.3 보급용

과거를 위한 시험준비용 또는 한시와 같은 학습을 위한 초집 외에도 실용적 목적의 보급을 위한 초집도 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초집되어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조선시대의 책은 공급이 많지 않고 가격적으로도 매우 비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내용이 방대한 책은 종지와 붓과 먹 등의 공임과 시간 등이 많이 필요하여 비싸므로 필요하다고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보급용으로 필요한 책의 일부분이나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 초집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다.

둘째, 읽어야 할 양이 매우 많은 경우 내용 중 일정의 부분을 발체의 형식으로 재정리 또는 재편집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과거용과 학습용의 초집 목적과도 유사할 수 있다.

셋째, 전체 내용 중 일정의 기준이나 주제 등으로 재정리 및 재편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또한 과거용과 학습용의 초집 목적과 유사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목적에 따라 전체 책 중 일부분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조선시대 유생들은 책의 보급량이 많지 않아 필요한 책의 경우 필사 즉 수초와 같은 베끼는 방식으로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 책 자체의 양이

많은 경우 전체의 필사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전체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는 방식으로 베껴 쓰면 초집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난 후 국가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간행한 방각본 출판이 시작되었다. 다만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1세기 반 동안 간행된 것으로 8종만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고사촬요』와 『사문유취초(事文類聚抄)』 등이 있다. 즉 방각본은 영리로 책을 간행하였기에 재야의 선비나 유생 및 일반서민들에게 수요가 많은 책들을 대상으로 간행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실용적이면서 유용한 유서와 유서 초집이 간행되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초집은 고가, 많은 내용, 내용의 정리, 필사와 같은 이유로 생산된 또 다른 형식의 책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는 초록(抄錄)으로 일부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잘 찾아지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준비나 학습 또는 책의 보급 등을 위하여 생산된 우리 특유의 책의 종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초집의 대표적인 예는 정식으로 필사나 간행되지 않았을 과거용 외에 한시 학습을 『백련초해』와 『당현송현시초』, 실용적이나 양이 많아 초집되어진 보급용의 유서 『사문유취』에 대한 『사문초』, 『사문촬요』, 『사문유취초』, 『고금사실유취(古今事實類聚)』 등이 대표적이다.

3.4 요약용

어떤 한 분야의 자료를 모아 엮은 초집도 있으며, 이 경우 다소 유서와 같은 성격으로 보이기도 하나 경문이나 시문 및 유서 외에 관련된 자료 중 의장이나 명문과 같은 문구를 초집한 책들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류로 『당송팔대가문(唐宋八家文)』이 있다. 중국 명나라 때에 모곤(茅坤)이 당송 팔대가의 산문을 편집하여 한데 모은 164권의 책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가 있다. 이는 후에 ‘팔대가(八大家)’라 표시한 산문 선집의 시초가 되었는데, 청의 십덕잠이 『당송팔대가문초』를 발췌하고 문법을 설명하고, 선인의 비평과 당송 팔대가 관련 기사를 수록하였다. 이는 초학자의 학습서를 초집

한 것으로 건륭(乾隆) 4년(1739)에 30권으로 간행되었다.

둘째, 의장류의 『의장초집(儀仗抄集)』이 있다. 이는 구한말의 황제, 중궁(中宮), 동궁(東宮), 친왕(親王)의 의장(儀仗)에 관한 세부 기록인 의장품목서(儀仗品目書)로서 실제로는 『명사(明史)』에서 초록하여 간행한 책이다. 즉, 고종(高宗)이 건원칭제(建元稱帝)한 시기인 1897년에 황제의 즉위, 황후와 황태자의 책봉, 존호(尊號)의 추상(追上)과 가상(加上), 시호(諡號)의 책봉 등 수많은 의식의 세부 절차 규정화를 위해 『명사(明史)』 권64, 지(志) 제40, 의위(儀衛) 중에서 인원과 설명문 부분은 제외하고 물목(物目)의 수량과 구체적 배열에 관한 내용만을 초집 축약한 것이다. 구체적인 초집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의장초집』의 구성과 내용

구분	내용
황제의 의장	奉天門外陳設 二十五, 左右布旂 六十四內, 奉天門內陳設 十一, 黃摩仗 九十內, 丹陛幢節等仗 八十八內, 奉天殿門陳設 十八, 殿上陳設 八
중궁의 의장	丹陛儀仗 三十六內, 丹墀儀仗 五十八內, 宮中常用儀衛 二十內
동궁의 의장	門外陳設儀仗 十內, 殿外陳設 三十六內, 殿前陳設 四十八內, 殿門陳設 二十內, 殿上陳設 六內
친왕의 의장	門外陳設 四內, 殿下陳設 八內, 殿前陳設 二十四內, 殿門陳設 十內, 殿上陳設 六內

이상의 표와 같이 19개의 의장이 발췌되어 있으며, 황제, 중궁, 동궁, 친왕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다. 네 부분의 의장에 쓰이는 물품으로 각각 304개, 114개, 112개, 52개로, 도합 582개의 물품을 기록하고 있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K2-2132).¹⁴⁾

셋째, 역사료로 『이십일사문초(二十一史文鈔)』가 있다. 이는 중국 역사서인 21사¹⁵⁾ 중에 실려 있는 좋은 문장을 뽑아 초집한 책으로 규장각에 2종이 소장되

14) 線裝1冊(15張); 四周雙邊, 半郭18.7×13.3cm, 烏絲欄, 半葉 10行字數不定, 上黑魚尾; 27.2×17.7cm

15) 『史記』(西漢 司馬遷), 『漢書』(東漢 班固), 『後漢書』(南宋 范曄), 『三國志』(晉 陳壽), 『晉書』(唐 房玄齡 等), 『宋書』(南梁 沈約), 『南齊書』(南梁 蕭子顯), 『梁書』(唐 姚思廉),

어 있다. 하나는 표제가 『전사문초(全史文抄)』(奎中 3253)인 것으로 명의 대희(戴羲)가 초집한 목판본으로 옹정(雍正) 13년(1735)에 장연옥(張廷玉)의 서가 있다. 332권 100책으로 『사기(史記)』에서 『원사(元史)』까지 역사서 21사에 수록된 여러 가지 명문을 초집한 책이다. 다른 하나는 표제가 『후한서(後漢書)』(一簣古 952.01)로 송 범엽의 『후한서』에 실려 있는 훌륭한 문장을 명의 심국원(沈國元)이 선별 초집한 것이다. 이는 2권 1책의 영본(零本)¹⁶⁾으로 전자와의 관계는 이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의학류로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가 있다. 이는 『마경대전(馬經大典)』과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을 초집하여 언해한 책으로 2권 2책의 목판본이다. 『마경언해』라고도 불리우며, 간기(刊記)가 없어 편찬자와 편찬경위 및 간행시기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7세기경에 조선 인조 때 이서(李曙)에 의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 80-12)과 장서각(文 K3-333, 文 K3-334, 귀 C7 74 1 등)에 소장되어 있다.

4. 사문유취와 초집

이상에서는 전술의 초집의 유형 중 보급형의 일종으로 조사된 유서의 초집 중 전현들의 문집을 모아 엮은 것으로 조선시대 과거준비에도 많이 활용된 『사문유취』의 초집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사문유취』와 『신편고금사문유취』에 대하여 고찰하고, 『사문유취』 초집에 대한 조사와 『사문유취』 초집인 『사문초』의 현전본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陳書』(唐 姚思廉), 『魏書』(北齊 魏收), 『北齊書』(唐 李百藥), 『周書』(唐 令狐德棻), 『隋書』(唐 魏徵等), 『南史』(唐 李延壽), 『北史』(唐 李延壽), 『舊唐書』(後晉 劉昫等), 『新唐書』(宋 祁, 歐陽修), 『舊五代史』(宋 薛居正等), 『新五代史』(宋 歐陽修), 『宋史』(元 脫脫等), 『明史』(清 張廷玉等).

16) 卷17: 虞傳蓋傳, 張衡傳, 馬融傳, 左周黃傳, 荀悅傳, 李杜傳, 吳延史盧傳, 皇甫張段傳.

卷18: 陳王傳, 黨錮傳, 郭許傳, 竇何傳, 鄭孔傳, 皇甫嵩朱儁傳, 劉虞傳, 循吏傳, 酷吏傳, 宦者傳, 儒林傳, 文苑傳, 方術傳, 逸民傳, 列女傳, 南蠻傳, 西羌傳, 西域傳, 南匈奴傳.

4.1 사문유취와 신편고금사문유취

『사문유취』는 주희(朱熹)의 제자였던 축목(祝穆)이 각 집마다 많은 문목(門木)으로 나누어 고금의 사실과 시문을 유별(類別)로 구분하여 모아 엮은 중국의 유서이다. 편찬체제는 대개 『예문유취(藝文類聚)』나 『초학기(初學記)』를 모방하고 있어 유사하며, 전현(前賢)들의 문집 기록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신편고금사문유취』는 이상의 축목이 편찬한 『사문유취』를 원의 부대용(富大用)과 축연(祝淵)이 보충하여 만든 책으로 총목록 1책을 포함 70책으로 되어 있다. 즉, 『사문유취』가 160권 49책으로 전집(前集) 60권 16책, 후집 50권 14책, 별집 32권 9책, 속집 28권 10책으로 분책되어 있고, 부대용이 추가한 것은 신집(新集) 36권 10책, 외집(外集) 15권 5책이며, 축연이 추가한 것은 유집(遺集) 15권 5책이다(<표 4> 참조). 이들 전집에서부터 유집까지의 전체를 누가 편성 및 묶은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표 4> 『사문유취』와 『신편고금사문유취』의 구성

구별	구성	편찬자	내용	비고	
사문유취	사문유취	前集	天道, 天時, 地理, 帝系, 人道, 仕進, 仙佛, 民業, 技藝, 樂生, 嬰疾, 神鬼, 喪事	60권 16책 13부	
		後集	人倫, 娼妓, 奴僕, 肖貌, 穀菜, 材目, 竹筍, 菓實, 花卉, 鱗蟲, 介蟲, 毛鱗, 羽蟲, 蟲豸	50권 14책 14부	
		續集	居處, 香茶, 燕飲, 食物, 燈火, 朝服, 冠履, 衣衾, 樂器, 歌舞, 璽印, 珍寶, 器用	50권 13부	
		別集	儒學, 文章, 書法, 文房, 禮樂, 性行, 仕進, 官政, 人事	32권 9책 9부	
	신편고금사문유취	신집	元 富大用	三師, 三公, 省官, 中書省, 尚書省, 省屬, 六曹, 樞密院, 御史臺, 諸院, 國史院, 諸寺, 諸監, 殿司, 諸庫局	36권 10책 15부
				東宮官, 陸親府, 王府官, 節使, 統軍司, 都司使, 諸提舉, 路官, 縣官	15권 5책 9부
		遺集	元 祝淵	三師, 樞密院, 省官, 諸院, 東宮官, 國史院, 六曹, 寺監, 省屬, 封爵, 王府, 節使, 殿司, 統軍司, 府司, 監司, 諸提舉, 路官, 宮官	15권 5책 19부
총				70책 236권	

축목은 주자의 제자이자 문인이며 주자 또한 『사문유취』를 높이 평가하였기에 유교와 성리학을 근간으로 한 조선에서는 다양한 유서 중 특히 『사문유취』를 존중하였다. 즉, 1493년(성종 24) 교서관(校書館)에서 90질을 간인하여 반포하였으며, 중국 판본도 중각(重刻)하여 널리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문유취』는 이상 표에서 보여주듯이 매우 방대한 도서로서 전체를 열람하기도 쉽지 않고 대형도서로서 구하기도 쉽지 않아 초집이 등장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4.2 사문유취 초집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및 한국학연구원의 규장각 소장 의 『사문유취』의 초집으로 조사된 것은 『사문초(事文抄)』, 『사초(事抄)』, 『사문유초(事文類抄)』, 『사문유취초(事文類聚抄)』, 『고금사실유취(古今事實類聚)』, 『혹관(或觀)』, 『잡동산이(雜同散異)』 등이 대표적이다. 각 『사문유취』 초집의 구성은 <표 5>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문초』는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된 『사문유취』의 초집이다. 그중 책1의 권1을 보면 천도, 천시, 지도, 인사, 인도, 사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문유취』의 전집과 후집 및 별집을 대상으로 하되 그 외 부분의 경우 『사문유취』의 전집에서 부터 별집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초집하고 있다. 『사문초』의 서명으로 현전하는 초집은 대부분 동일한 판본의 목판본으로 간인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필사한 필사본도 전하고 있다.

둘째, 『사초』는 『사문유취』 초집으로 제2책 영본으로 규장각 소장의 필사본(古 0160- 8-v.2)이다. 민업, 기예, 관직, 악생, 병질, 신귀, 농사, 유학, 문장, 서법, 성행문, 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문유취』의 전집과 별집을 대상으로 초집하고 있다.

셋째, 『사문촬요(事文撮要)』는 236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사문유취(事文類聚)』를 간략하게 간추린 책으로 각 권에서 요점을 발췌하여 유별(類別)로 분류하였다. 필사본의 4책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 5> 『사문유취』 초집의 구성

구성	내용	비고
사문초	冊1 卷1: 天道, 天時, 地道, 人事, 人道, 仕進 冊2: 人倫部, 人倫門, 喪事, 疾病, 技藝, 文房四友, 性行, 禮樂, 仕進, 林木, 花世 冊3: 珍寶, 器用, 樂器, 民業, 居處, 燕飲, 文章, 帝系, 鱗蟲, 毛蟲, 羽蟲	4권 3책 27부
사초	民業, 技藝, 官職, 樂生, 病疾, 神鬼, 農事, 儒學, 文章, 書法, 性行, 官政	책2 12부
사문유취초	卷1: 天道, 天時, 地道, 人道, 仕進, 仙佛, 民業, 技藝, 人事, 人倫 卷2: 人倫, 形體, 穀菜, 林木, 花草, 鱗蟲, 介蟲, 毛蟲, 羽蟲 卷3: 居處, 譙飲, 食物, 燈火, 朝服, 冠履, 衣衾, 樂器, 壓印, 珍寶, 器用, 諸院, 官職, 人事, 性行, 儒學, 書法	3권 3책 21부
사문유초	天道, 天時, 地道, 人道, 仕進, 仙佛, 民業, 技藝, 人事, 人倫, 人倫, 形體, 穀菜, 林木, 菓實, 花草, 鱗蟲, 介蟲, 毛蟲, 羽蟲, 居處, 譙飲, 食物, 燈火, 朝服, 冠履, 衣衾, 樂器, 壓印, 珍寶, 器用, 諸院, 官職, 人事, 性行, 儒學, 書法	3책
상고사문유초	卷1: 天道, 天時, 地道, 人事, 人道, 仕進 卷2: 人倫部, 人倫門, 喪事, 疾病, 技藝, 文房四友, 禮樂, 性行, 仕進, 林木, 花世 卷3: 珍寶, 器用, 樂器, 民業, 居處, 燕飲, 文章, 帝系, 鱗蟲, 毛蟲, 羽蟲	3권3책
고금사실유취	三帥 三公 省官 中書省 尚書省 省屬 六曹 樞密院 御史台 諸院	10부
혹관	天, 歲時	2부

넷째, 『사문유취초』는 규장각 소장본(想白古039.51)으로 권1 권수부분에 전이채(田以采)와 박치유(朴致維)의 기록이 있어 이들이 초집한 것으로 보인다. 목록 말미에 ‘己未開板’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권수 목록에 의하면 3권 3책이나 현전본은 1책의 목판본 영본(零本)이다. 『사문유취』의 전집과 후집 및 별집을 대상으로 초집하고 있으며, 일부 순서 등의 편집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문유초(事文類抄)』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산古032-99)으로 목록서명과 권두서명은 『사문유취초(事文類聚抄)』이다. 규장각 소장본(想白古039.51)과 같이 목록 말미에 ‘己未開板’이라는 기록이 있고, 전체적으로 규장각 소장본의 『사문유취초』와 같다.

여섯째, 『상고사문유취초(詳校事文類聚抄)』는 1913년에 지송욱(池松旭)에 의하여 초집되어 목판본 간행되어 출판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산古032-99) 『사문초』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일곱째, 『고금사실유취』는 『신편고금사문유취』 중에서 부대용이 편집한 신집을 초록(抄錄)하여 중국의 한나라에서 송나라까지의 관직제도에 관한 부분을 따로

뽑아놓은 책이다.¹⁷⁾ 이는 편자 미상의 필사본 4책이다. 구성은 『신편고금사문유취』의 신부 15부 중 삼사, 삼공, 성관, 중서성, 상서성, 성속, 육조, 추밀원, 어사대, 제원까지 10부에 대하여 시문은 빼고 사실 부분만을 간추려 초집하였다. 병부와 형부 및 공부 등의 각 직관에 대해 기술하고 추밀원, 어사대, 제원 중의 한림학사(翰林學士) 승지(承旨)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소속 관청과 관인 등에 대해 설명이다.

여덟째, 『혹관(或觀)』은 조선 후기의 학자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이 학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엮은 유서이다. 필사본 1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한古朝 93-6)으로 『사문유취』 천부와 세시부를 초집하고 그 외에 장자목록(莊子目錄), 북사문자초(北史文字抄), 문장발휘목록(文章發揮目錄), 소설어록문자초(小說語錄文字抄), 오강조항우임제표(烏江吊項羽林梯表) 및 여러 사람의 과표(科表)와 성현의 잠언 등을 함께 필사하고 있다.

아홉째, 『잡동산이(雜同散異)』는 53책으로 안정복(安鼎福) 편 의 미완성 고본(稿本)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 제도, 유교 경전의 자구(字句), 명가(名家)의 저술, 명물(名物) 등우록 구성되어 있다. 다소 체계적이지 않고 내용의 구분도 혼동되어 있으나 대부분 여러 전적에서 발췌하거나 초록, 또는 전재(轉載)한 것이 많으며, 그중 제39책의 경우 『사문유취』 자의(字義)를 뽑아 해설하고 있는 것이다. 규장각(奎 7178)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사문유취』의 초집은 『사문유취』의 일부를 대상으로 초집하거나 전체를 초집하거나 편집하는 등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사문초』와 『사문유초』(즉 『사문유취초』)는 같은 초집이며, 『상교사문유초』는 『사문초』와 같다. 종합적으로 『사문초』, 『사초』, 『사문유취초』는 축목의 『사문유취』 전집부터 별집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초집한 것이며, 『고금사실유취』는 『신편고금사문유취』 신편을 초집한 것이다. 그의 『혹관』과 『잡동산이』는 『사문유취』의 일부를 필사하거나 자의를 해설하고 있다.

17) 참고로 규장각 소장본 중 『고금유취(古今類聚)』(奎12368)는 중국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의 문물제도에 관한 것을 유별(類別)로 모아 엮은 책이다. 경국류(經國類), 입정류(立政類), 예악류(禮樂類), 후생류(厚生類), 이용류(利用類), 형법류(刑法類), 병제류(兵制類) 등으로 구분 기술하고 있다. 일명 『고금사실유취(古今事實類聚)』로도 불리어나 본 연구의 『고금사실유취』와는 다른 책이다.

4.3 사문유취 초집 현전본

『사문유취』의 초집으로 조사한 『사문초』, 『사초』, 『사문촬요』, 『사문유초』, 『사문유취초』, 『고금사실유취』, 『혹관』, 『잠동산이』 등의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 및 규장각 소장 현전본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각 도서관의 조사 결과 이상 8종의 『사문유취』 초집 중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생략하였다.

<표 6> 『사문유취』 초집 현전본

서명	소장처	서지사항	비고
사문초	국립중앙 도서관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3冊: 四周單邊, 半郭 16.4 x 12.9 cm, 15行28字, 註雙行, 內向二葉 花紋魚尾: 19.1 x 14.8 cm	한고朝91-31-2
		卷2-3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冊: 四周單邊, 半郭 16.0 x 11.2 cm, 12行24字, 註雙行, 內向二葉 花紋魚尾: 19.0 x 14 cm.0	의산古032-93
		卷1, 3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2冊: 四周單邊 半郭 15.4 x 11.1 cm, 有界, 12行24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19.0 x 14.2 cm	古031-19
		祝穆 撰: 張煥舜 編. 木板本 全州: 七書房, 大正6年(1917) 3冊: 四周單邊 半郭 15.3 x 10.9 cm, 有界, 12行24字, 內向二葉花 紋魚尾: 19.2 x 14.9 cm	古朝91-48
		卷1-4 / 祝穆(宋) 撰.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4卷3冊: 四周單邊 半郭 15.5 x 11.0 cm, 有界, 12行24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18.5 x 14.0 cm	성호古032-133 藏書記: 鄭判官宅入納
	장서각	1799년 / 己未 27.5×18.3	원소장처: 경주이씨 고 이찬우
		祝穆(宋) 原編. 木板本 [庚午(1870)] 1冊(第2-3冊缺): 四周單邊, 上下二葉花紋魚尾: 19.1 x 14.5cm	C15 4A
		[編者未詳] []: [], [年紀未詳] 1冊(38張): 21.5 x 13.9cm 筆寫本	C15 4B
		編者未詳]. 木板本 [刊年未詳] 1冊(第1 - 2冊缺): 四周單邊, 上下二葉花紋魚尾: 19 x 14.5cm	C15 41, C15 43

서명	소장처	서지사항	비고
사초	규장각	祝穆(南宋) 著. 筆寫本 [刊地未詳] 1册(零本) [刊年未詳][刊者未詳] 22.2×16.8cm	古 0160-8
사문 유초	국립중앙 도서관	卷1, 3 / 祝穆 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2册	의산古032-99 원문
상고 사문 유초	국립중앙 도서관	池松旭 編. 木板本 京城: 新舊書林, 1913 3册: 四周單邊, 半郭 19.4 x 12.9 cm. 15行28字, 註雙行, 上黑魚 尾: 19.4 x 15.4 cm	한古朝91-31
사문 유취초	규장각	祝穆(南宋), 田以采·朴致維 1卷 1册(零本) 26.9×17.5cm.	想白古 039.51-C471s
	장서각	祝穆(宋) 原編.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册(157張): 22.6 ×15.4 cm 全3卷3册 / 祝穆(宋) 原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哲宗 10(1859)] 3卷3册: 四周單邊, 上下混入花文魚尾: 26.6 ×18.9 cm 刊記: 己未(1859?)開版, 田以采, 朴致維 梓 版心書名: 事文類抄 表紙書名: 事文類聚	C15 32A C15 32
고금 사실 유취	규장각	[編者未詳].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册(零本): 28.4 ×17.5 cm	奎 7646
		[編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4册: 32.0 × 20.0 cm	奎 4543
혹관	국립중앙 도서관	安鼎福 著.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72張: 24.3 x 18.2 cm	한古朝93-6
잡동 산이	규장각	安鼎福(朝鮮) 編. 筆寫本 [刊地未詳]: [20世紀], [刊者未詳] 53册: 24.3×16.9cm 匡郭 四周雙邊, 半葉匡郭:18.8×12.6cm, 有界, 10行 20字 注雙行 上黑魚尾	奎 7178
		安鼎福(朝鮮) 編 . 筆寫本 [刊地未詳]: [刊者未詳], [18世紀 後半(正祖 年間: 1776-1800)] 42册(落帙): 25.7×15.6cm(大小不同) 匡郭 12行 內外 36字 內外 注雙行	古 0160-12

이상의 표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과 한국연구원의 규장각 소장의 『사문유취』 초집본은 『사문초』, 『사초』, 『사문유초』, 『사문유취초』, 『상교사문유초』, 『고금사실유취』, 『혹관』, 『잡동산이』의 8종이 조사되었다. 1) 『사문초』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5종, 장서각에 4종으로 총 9종이 소장되어 있다. 2) 『사초』의 경우 규장각에 1종이 소장되어 있다. 3) 『사문유초』와 4) 『상교사문유초』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1종이 소장되어 있다. 5) 『사문유취초』의 경우 규장각에 1종, 장서각에 2종으로 총 3종이 소장되어 있다. 6) 『고금사실유취』의 경우 규장각 2종이 소장되어 있다. 7) 『혹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1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8) 『잡동산이』의 경우 규장각에 2종이 소장되어 있다. 즉, 총 20종의 『사문유취』 초집본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 및 규장각에 목판본과 필사본으로 현전하고 있으며, 일부 초집으로 서명만 다르게 현전하고 있는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구성과 서지적 부분에 차이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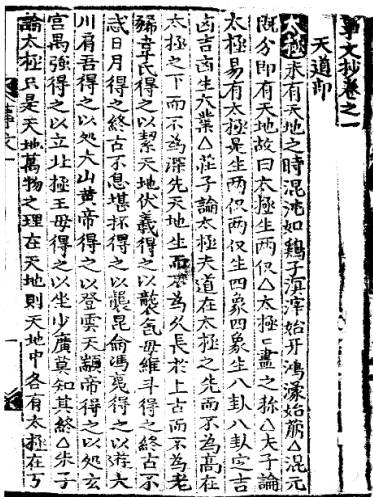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문초』와 『사문유초』 및 『상교사문유초』를 대상으로 서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일부 전기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첫째, 『사문유취』 초집으로 가장 많이 현전하는 것은 『사문초』이다. 이는 4권 3책의 목판본으로서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목판본으로 동일한 판본으로 현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5종의 사문초가 소장되어 있으며, 3종(한古朝91-31-2(<그림 1>), 古朝91-48(<그림 2>), 성호古032-133)은 4권 3책이며, 그 외 2종(의산古032-93 古031-19)은 권2-3과 권1과 권3의 결질로 소장되어 있다. 다만 전자는 1책이며, 후자는 2책으로 권책사항에 차이가 있으므로 간행시기가 다른 판본으로 보인다.

둘째, 『사문유취』 초집으로 다음으로 많이 찾아지는 것은 『사문유초』 초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1종의 『사문유초』(의산古032-99, <그림 3>)가 소장되어 있다. 권1과 권3의 2책으로 목판본이나 상술의 『사문초』와는 구성의 전개가 다르다. <표 5>와 같이 『사문유취초』 또한 『사문유초』이며 규장각 소장본의 『사문유취초』(想白古039.51-C471s) 또한 같은 책이다.

셋째, 『상교사문유초』는 국립중앙도서관에만 1종(한古朝91-3, <그림 4>)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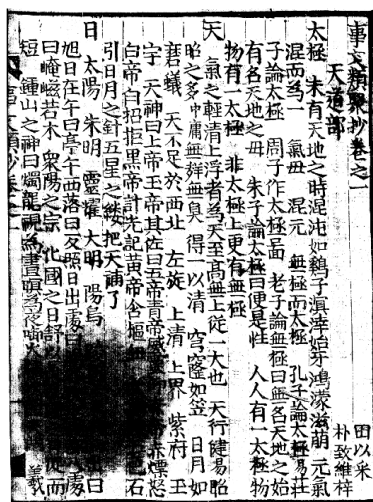
소장되어 있는 『사문유취』 초집이다. 3책의 목판본으로 상술의 『사문초』와는 판의 형태가 다르나 구성과 내용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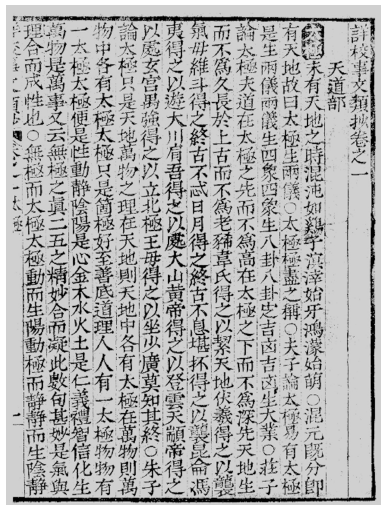
<그림 1> 사문초(한고91-31-2)



<그림 2> 사문초(古朝91-48)



<그림 3> 사문유초(의산古032-99)



<그림 4> 상교사문유초(한고91-31)

5. 결 언

이 연구는 발췌본 또는 초록본 등으로 알려져 온 초집의 개념과 초집의 유형을 고찰하고, 유서 중 『사문유취(事文類聚)』 초집 현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 및 규장각 소장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중 3종의 목판본을 서지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집은 경문과 제술에 대한 과거시험 준비 또는 참고용으로 만들어지고, 한시의 학습을 위하여 당현시와 송현시 등의 시문을 초집하여 학습에 활용되었다. 또한 유서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거나 가격이 고가이기에 이를 초집하거나 영리 목적의 방각본에서 초집을 출판하는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 외 문학류나 의장류, 역사류와 의학류와 같은 일부 주제분야의 경우 요약의 양식으로 초집본이 생산되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 및 규장각 소장의 『사문초』, 『사초』, 『사문유초』, 『사문유취초』, 『고금사실유취』, 『혹관』 등을 조사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에 10종, 규장각에 4종, 장서각에 6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문유취』 초집은 목판본과 필사본으로 현전하고 있으며, 구성과 서지적 부분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사문유취』 초집으로 『사문초』와 『사문유초』 및 『상교사문유초』를 살펴본 결과, 3종의 초집 모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나 다른 판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문초』와 『상교사문유초』는 형태는 다르나 내용 구성이 유사하며, 『사문유초』는 형태와 내용 구성이 모두 다르다.

넷째, 『사문유취』의 초집에 대한 현전본 조사 결과 『사문유취』의 초집은 『사문유취』를 초집하거나 편집하는 등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사문초』(또는 『상교사문유초』)와 『사문유초』(또는 『사문유취초』)는 각각 같은 초집이며, 이들은 축목의 『사문유취』 전집부터 별집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초집한 것이다. 반면에 『고금사실유취』는 부대용의 『신편고금사문유취』 신편을 초집한 것이다.

초집은 기본적으로 대상 자료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거나 일정 기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자료적 가치나 사적 가치는 크지 않다. 그러나 과거와 학습

및 경제적, 내용적 이유 등의 사회적인 필요에 의하여 등장한 책의 한 종류로서 현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살핀 초집의 유형과 유사 『사문유취』 초집의 종류 및 현존본에 대한 고찰이 초집 관련연구 및 연구자를 위한 기초자료 및 서지적 자료가 될 것이며, 도서관에서의 고전자료의 관리에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端宗實錄』.

『成宗實錄』.

『太宗實錄』.

김락영. “조선전기 잡학교육과 소고: 역학·의학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4.

김병호. “朝鮮前期 “科擧制度”와 科業形態에 나타난 教育意識.”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0.

노용필. 『개화기 서울 사람들 1: 왕실·중인·천민, 우리 역사속의 사람들 1』.
서울: 어진이, 2004.

박현순.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韓國文化』 69(2015). 205-243.

北京大學圖書館編. 『北京大學圖書館藏朝鮮版漢籍善本萃編(全十冊): 域外漢籍珍本文庫』. 北京: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4.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서울: 일지사, 1999.

沈慶昊. “근대 이전의 한시 학습 방식에 관하여: 聯句·古風 제작과 抄集·選集의 이용.” 『語文研究』 30(3)(2002), 235-257.

이원재. “조선전기 교육제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사학』 28(2)(2006), 75-114.

이원재. “朝鮮前期 抄集 研究.” 『한국교육사학』 22(1)(2000). 151-168.

이원재. “조선전기 교육에서의 ‘요행’의 문제.” 『教育學研究』 46(1)(2008). 53-78.

이원재. “조선전기 과거시험의 교육적 역기능.” 『한국교육사학』 35(1)(2013). 161-186.

함규진. 『왕의투쟁: 조선왕, 그 고독한 정치투쟁의 권력자』. 서울: 페이퍼로드, 2007.